

대학생 직업소양능력 진단 및 지원 프로그램 적용: D 전문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Diagnosis of General Job Skills for College Students and Application of Supporting Program: based on an Example Analysis of D College

오만덕, 이승희
동아방송예술대학

Man-Deok Oh(omdpr@dima.ac.kr), Seung-Hee Lee(seunglee@dima.ac.kr)

요약

직업소양능력은 산업분야에 진출하는 산업인력들이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 직업소양능력 습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비산업인력인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수준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 전문대학을 대표사례로 선정하고 직업소양능력 진단도구인 CCQB(Core Competency Questions using BARS)를 토대로 재학생, 교원, 현장전문가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직업소양능력 수준에 대해 학생과 교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산업현장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노력을 넘어 대학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중심어 : | 전문대학생 | 직업소양능력 | 조직체계이해능력 | 리더쉽능력 |

Abstract

General job skills are the required competencies for any work personnel regardless of areas of expertise. This case study applied various research methodologies in order to identify the necessity finding general job skills of D college students and search levels of general job skills of D college students. In detail,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various data from students, faculty members, and graduates of D college, field experts using both CCQB(Core Competency Questions using BARS) and the focus-group interviews. The study results report that there are considerable gaps between the perceptions of students, faculty members and field experts in terms of the levels of general job skills.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ges should provide the supporting systems and educational programs as a way of improving general job skills for students.

■ keyword : | College Students | General Job Skills | Organization System Understanding | Leadership |

I. 서론

1.1 연구목적

글로벌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직업군과 직무가 다

접수번호 : #110318-001
접수일자 : 2011년 03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05일
교신저자 : 오만덕, e-mail : omd36@hanmail.net

양해 지면서 어떠한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융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1][2]. 따라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 즉 직업소양능력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직무능력표준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통 능력과 소양을 정의하고 산업인력들의 직업소양 능력 습득을 독려하는 여러 정책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3]. 이와 동시에 학계에서도 직업소양능력의 개념과 영역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으로 진출하는 인력들의 직업소명의식이 낮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스킬이나 직장에 대한 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전문대학 출신 학생이나 졸업 예정자들의 경우, 4년제대학보다 짧은 학습수행기간 동안 기능훈련에 주력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소양능력을 갖추는데 소홀한 실정이다.

21세기에 들어 사회 및 산업현장이 기대하는 인재상은 어느 한 분야만을 잘 아는 'I자형' 인재의 범주를 넘어선다. 오히려 자신의 전공지식이나 스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협력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T자형' 인재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4년제대학 학생 뿐 아니라 현장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전문대학 학생에게도 해당된다. 따라서 전문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교육적 책무를 추구하는 전문대학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체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대학 교육개선의 일환으로, 직업소양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되돌아보고 D 전문대학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다음의 연구문제들을 규명하

는데 있다.

첫째,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소양능력의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직업소양능력 개념 이해

그동안 해당 분야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직업소양능력¹⁾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논의는 소위 'T자형 인재²⁾'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유형의 인재는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동료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리더십과 팀워크,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문제해결능력 등이 뛰어난 특징을 보이는데, 이 역량들은 직업소양능력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로 전문대학 교육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기초학습능력과 직업소양능력이다. 기초학습능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표현하기, 수학적 계산하기 등 대학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4]. 반면, 직업소양능력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 스킬, 태도, 가치관 등 직업인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3]. 이 선행연구는 직업소양능력의 범위를 직업 활동에 필요한 스킬이나 기능이라는 개념을 넘어 인간의 삶에 필요한 생애능력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직업소양능력의 개념, 범위와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선행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을 '다양한 산업, 직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유하여야 할 직업능력 중 급격한 사회변화, 또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능

1) 연구자에 따라 '직업기초능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 연구는 편의상 '직업소양능력'을 사용함

2) T자형 인재는 전공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다른 전문가와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여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인력을 지칭함 ('Global Report Trend: T자형 인재가 뜬다' 참조 http://hr.incruit.com/introduce/mz_det.asp?HRID=1680)

력(Job general skills)(p.59)'으로 정의한다[5]. 다른 연구에서는 직업소양능력을 '대부분의 직업에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역량으로 대부분의 직업에 전이가능하며 직무내용 및 직위변화 등과 같은 직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능력(p.6)'으로 개념화한다[3]. 좀 더 포괄적인 접근에서 '생애동안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지식·스킬·태도 등의 총체'로 개념화하기도 한다(p.3-4)[6].

반면, 연구자의 관점에서 따라 직업능력을 기초직업 능력과 직무수행능력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 기초직업능력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p.76)'인데 비해, 직업기초능력은 '수준에 있어서 가장 낮은 기초적 수준의 직업능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개념(p.76)'으로 규정될 수 있다[4]. 한마디로 '인간이 직업 활동을 영위하고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직업능력'인 셈이다(p.112)[7].

여러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직업소양능력은 구체적 직무능력이 아닌 평생능력이자 직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식, 스킬, 가치관, 태도 등 여러 역량의 총합체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직업소양능력은 9개 영역(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관리 및 개발능력, 자원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8]. 보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소양능력을 7개 대분류 영역, 9개 소분류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총 12개 영역으로 규정하기도 한다[1]. 본 연구에서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안한 직업소양능력 세부영역이 보다 체계적이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세부능력과 수준을 가늠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 이를 연구기준으로 삼았다.

2.2 직업소양능력 수준 진단 사례

그동안 전문대학 학생 혹은 졸업생들이 갖추어야 할 직업소양능력과 실제적 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한 해외연구의 경

우, 교수에 의한 교육과정상의 평가, 학생의 포트폴리오에 의한 평가, 현장경험에 기초한 평가, 유목적적으로 개발된 도구의 관점에서 직업소양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제안하고 있다[9].

반면, 직업소양능력 관련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학생 및 교수의 인식 차원에서 직업소양능력 수준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연구의 경우, 조사에 참여한 전문대학 학생들 상당수가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소양능력의 중요성을 높이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0].

한편,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기초능력과 전문대학 학생의 수준을 규명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보유수준(2.14)이 산업체 요구(4.29)보다 낮게 나타나, 산업체 요구를 전문대학 학생들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5]. 나아가, 산업체에서 자기관리능력(4.4)과 문제해결력(4.33)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5].

또한, S 전문대학 학과별 학생들의 직업기초능력 현재수준을 진단한 선행연구에 따르면[1], 전반적으로 직업기초능력 수준에 대해 교수나 학생이 인식하는 수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리더십, 자신감 및 책임감 영역의 경우, 학생의 자기진단 결과보다 학생수준에 대한 교수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4.4), 의사소통능력(4.9), 수리능력(4.5)의 경우, 산업체 요구수준이 교수가 평가한 학생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영역들을 좀 더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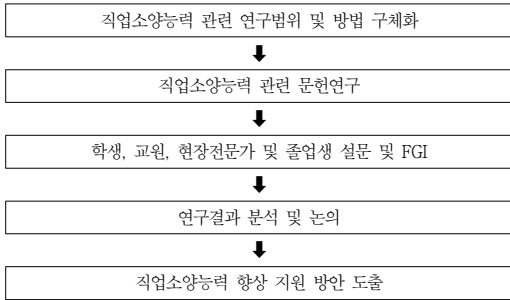
이상 그동안 수행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준 진단에 그치고 있어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좀 더 진일보한 사례 발굴을 통해 보다 효과적, 효율적, 매력적으로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III. 연구절차 및 방법

3.1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절차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절차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양능력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논문 및 보고서 자료를 수집, 연구현황을 검토하여 본 연구 수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D 전문대학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다음의 연구단계를 거쳤다;

첫째, 학생 대상 직업소양능력 수준 진단: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생용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인 ‘CCQB(Core Competency Questions using BARS)’[1][11]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현재수준을 진단하였다. 세부 영역 중 조직체게이해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진단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둘째, 교원대상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수준진단: 동일한 진단도구를 교원 65명에게 배포하여 전문대학 학생 혹은 예비인력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소양능력 수준과 학생의 현재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였다(총 20부, 회수율: 30.7%).

셋째, 교원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 실시: 앞서 실시한 진단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직업소양능력 관련 이슈를 도출하는 등,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부 교원 12명에 대해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원방안 제안에 반영하였다.

넷째, 현장전문가 및 졸업생 대상 직업소양능력 수준

진단: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졸업생 7명에게 동일한 진단도구를 적용하여 산업인력에게 요구되는 직업소양능력의 현재 및 기대수준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다섯째, 현장전문가 및 졸업생 대상 직업소양능력 관련 FGI 실시: 동일한 전문가 및 졸업생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는 SPSS (Version 18)로 통계처리되었다.

3.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CCQB 진단도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것으로, 직업소양능력 영역별 수준 및 행동특성을 1~7점으로 진단하도록 되어 있다. CCQB 도구에서 진단하는 직업소양능력 세부영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직업소양능력 진단도구 구성항목[1][11]

세부영역		정의
문제 해결 능력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창생활이나 과제 수행, 또는 학습 활동 시 개인 간, 혹은 그룹 간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 및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필요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원 활용 능력	정보 활용 능력	학창생활 및 학습,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능력
	도구 활용 능력	학창생활 및 학습, 과제 수행에 필요한 도구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능력
수리 능력		학교에서의 학습이나 과제 수행 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통계자료나 지표자료를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거나 적절한 도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조직 이해 능력	국제 문화 이해 능력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국내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국제적 사고 능력
	조직 체게 이해 능력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나 단체, 동아리 등의 설립 목표와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행동과 사고를 하며, 그를 근거로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대인 관계 능력	리더십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해 나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러한 셀프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역할 모델로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학창생활을 하면서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할 때 다

	능력	른 사람과 팀을 이루어서 협조적으로 일을 하여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
	갈등 관리 능력	학창생활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의롭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능력
자기 관리 능력	경력 개발 능력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의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모니터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책임감 및 자신감	어떤 과제를 수행하거나 계획을 세웠을 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신있게 일정을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내는 능력

직업소양능력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FGI 질문 항목은 그룹에 따라 선별, 구성되었으며 예시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채용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 혹은 인성은 무엇인가?

둘째, 전공능력 이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업소양능력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전문대학 학생 혹은 졸업생의 수준은 어떠한가?

넷째,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IV. 연구결과

4.1 학생관점에서 본 직업소양능력 현재수준

4.1.1 전체 응답 학생 진단결과 개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 자기진단 결과, 직업소양능력 전체수준은 평균 4.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리더십(4.77), 팀워크능력(4.51), 경력개발능력(4.50)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생들은 수리능력(3.21), 국제문화이해능력(3.50) 등의 영역에 대해 자신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3. 전체 응답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현재수준[12]

세부 영역	자기진단 결과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능력	61	3.79	.94
의사소통능력	61	4.38	1.26

정보활용능력	61	4.00	.70
도구활용능력	61	4.10	1.29
수리능력	61	3.21	1.11
국제문화이해능력	61	3.50	1.04
조직체계이해능력	61	3.75	1.02
리더십	61	4.77	.93
팀워크능력	61	4.51	1.32
갈등관리능력	61	4.18	1.12
경력개발능력	61	4.50	.91
책임감 및 자신감	61	4.18	1.24
평균	61	4.07	1.07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4.2 학생 성별에 따른 현재수준 인식 결과

성별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진단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직업소양능력 전체수준은 평균 3.95로 조사되었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리더십, 팀워크능력, 경력개발능력에 대한 자신들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문화이해능력(3.30), 수리능력(3.36), 조직체계이해능력(3.56), 문제해결능력(3.65)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학생의 직업소양능력 현재수준[12]

세부 영역	자기진단 결과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능력	22	3.65	.98
의사소통능력	22	4.15	1.24
정보활용능력	22	3.94	.69
도구활용능력	22	4.17	1.25
수리능력	22	3.36	.91
국제문화이해능력	22	3.30	.81
조직체계이해능력	22	3.56	1.02
리더십	22	4.68	.98
팀워크능력	22	4.37	1.24
갈등관리능력	22	4.00	.97
경력개발능력	22	4.30	1.00
책임감 및 자신감	22	3.95	1.33
평균	22	3.95	1.03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한편, 여학생의 직업소양능력 전체수준은 평균 4.14

로 조사되어 여학생의 자기진단결과는 남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은 리더십, 경력개발능력, 팀워크능력, 의사소통능력영역에 대해 자신들의 현재수준이 비교적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수리능력(3.13), 국제문화이해능력(3.61)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여학생의 직업소양능력 현재수준[12]

세부 영역	자기진단 결과		
	응답지수	평균	표준편차
문제해결능력	39	3.86	.91
의사소통능력	39	4.51	1.26
정보활용능력	39	4.04	.71
도구활용능력	39	4.06	1.33
수리능력	39	3.13	1.21
국제문화이해능력	39	3.61	1.14
조직체계이해능력	39	3.85	1.02
리더십	39	4.83	.912
팀워크능력	39	4.59	1.37
갈등관리능력	39	4.28	1.20
경력개발능력	39	4.61	.84
책임감 및 자신감	39	4.30	1.19
평균	39	4.14	1.09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자신들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생 남녀의 직업소양능력 영역에 대한 자기진단결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4.2 교원관점에서 본 직업소양능력 현재 및 기대 수준

4.2.1 전체 응답 교원 인식 결과 개요

D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 수준에 대한 내부 교원들의 인식은 현재 및 기대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감 및 자신감에 대한 교원의 기대수준은 5.56인데 비해, 교원들이 인식하는 현재수준은 3.71로, 교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상당 수준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의사소통능력 역시 기대수준이 5.24인데 비해, 교원들은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3.47로 인식하고 있어 해당 영역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소양능력 수준에 대한 차이가 큰 영역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책임감 및 자신감(1.85), 의사소통능력(1.77), 조직체계이해능력(1.76), 문제해결능력(1.66), 국제문화이해능력(1.65), 리더십(1.62), 경력개발능력(1.58), 수리능력(1.54) 등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학생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전체 교원 인식 결과[13]

세부영역	기대수준	현재수준	차 이
문제해결능력	4.94	3.28	1.66
의사소통능력	5.24	3.47	1.77
정보활용능력	4.89	3.62	1.27
도구활용능력	5.36	4.02	1.34
수리능력	4.35	3.13	1.54
국제문화이해능력	4.78	3.13	1.65
조직체계이해능력	4.91	3.15	1.76
리더십	5.63	4.01	1.62
팀워크능력	5.56	4.40	1.16
갈등관리능력	5.39	3.90	1.49
경력개발능력	5.53	3.95	1.58
책임감 및 자신감	5.56	3.71	1.85
평균	5.18	3.65	1.69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직업소양능력 현재수준에 대한 교원 및 학생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역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능력(교원 3.28 vs. 학생 3.79), 의사소통능력(3.47 vs. 4.38), 정보활용능력(3.62 vs.4.00), 조직체계이해능력(3.15 vs. 3.75), 리더십(4.01 vs. 4.77), 경력개발능력(3.95 vs. 4.50) 등 교원들은 학생의 자기진단결과보다 낮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대학 학생이 산업체에 진출할 경우, 사회나 직업현장에서 기대에 비해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 수준이 충족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2.2 성별 교원에 따른 인식 결과

교원 성별에 따른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남성교원의 기대수준은 4.63인데 비해, 현재수준은 3.67로 나타

났다. 반면,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여성교원의 기대수준은 남성교원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현재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및 기대수준간 차이가 남성교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7] 참조).

남성교원의 기대에 비해 현재수준이 낮은 영역은 의사소통능력(1.83)과 문제해결능력(1.74)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교원이 인식하는 현재 및 기대수준간 차이는 국제문화이해능력(2.80), 갈등관리능력(2.40), 경력개발능력(2.30) 등에서 크게 나타났다.

표 7. 학생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성별 교원 인식 결과[13]

세부영역	기대수준		현재수준		차 이	
	남	여	남	여	남	여
문제해결능력	5.08	4.38	3.34	3.03	1.74	1.35
의사소통능력	5.24	5.23	3.41	3.70	1.83	1.53
정보활용능력	4.38	4.83	3.49	4.10	0.89	0.73
도구활용능력	4.57	5.15	3.96	4.28	0.61	0.87
수리능력	3.28	4.03	2.76	3.00	0.52	1.03
국제문화이해능력	4.43	5.05	3.34	2.25	1.09	2.80
조직체계이해능력	4.49	3.90	3.41	2.13	1.08	1.77
리더십	5.14	5.48	3.99	4.10	1.15	1.38
팀워크능력	4.89	5.28	4.43	4.28	0.46	1.00
갈등관리능력	4.67	5.45	4.11	3.05	0.56	2.40
경력개발능력	4.84	5.58	4.12	3.28	0.72	2.30
책임감 및 자신감	4.60	5.28	3.73	3.63	0.97	1.55
평균	4.63	4.97	3.67	3.40	0.97	1.56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4.2.3 전공분야별 교원 인식 결과

직업소양능력에 관한 설문지에 응답한 내부 교원들의 분야를 크게 사회과학분야, 미디어분야, 예술분야로 나누어 응답결과를 살펴본 결과, 분야별로 현재 및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분야 교원(5.49)이 사회과학(5.24) 및 예술(4.58)분야 교원보다 학생의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야별 교원이 평가한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학생의 현재수준은 미디어분야(3.72), 사회과학분야(3.50), 예술분야(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디어분야 교원들이 다른 분야 교원에 비해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기대수준 뿐 아니라 현재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

가하고 있었으나, 현재 및 기대수준간 차이 역시 다른 분야의 교원의 인식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술분야의 교원의 기대수준은 다른 분야 교원들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학생의 현재수준은 다른 분야의 교원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예술대학의 경우,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디어분야 교원은 책임감 및 자신감, 리더십 영역이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회과학분야 교원은 국제문화이해능력, 의사소통능력, 조직체계이해능력, 경력개발능력 등이 많이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예술분야 교원의 경우 책임감 및 자신감, 국제문화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체계이해능력, 경력개발능력 등이 취약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8. 학생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분야별 교원 인식 결과[13]

세부영역	기대수준			현재수준			차 이		
	미디어 분야	사회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미디어 분야	사회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미디어 분야	사회 과학 분야	예술 분야
문제해결	5.25	4.67	4.50	3.40	3.37	3.00	1.85	1.30	1.50
의사소통	5.50	5.13	4.80	3.56	2.70	3.68	1.94	2.43	1.12
정보활용	5.12	5.03	4.39	3.47	3.63	3.87	1.65	1.40	0.52
도구활용	5.71	5.23	4.79	4.16	3.83	3.85	1.55	1.40	0.94
수리	4.77	4.40	3.53	2.97	2.60	2.60	1.80	1.57	0.93
문화이해	4.78	5.33	4.48	3.28	2.83	2.98	1.50	2.50	1.50
조직체계	5.52	4.73	3.89	3.55	2.50	2.74	1.97	2.29	1.15
리더십	5.95	5.83	4.96	3.92	4.10	4.14	2.03	1.91	0.82
팀워크	5.89	5.77	4.86	4.37	5.00	4.15	1.52	0.77	0.72
갈등관리	5.67	5.70	4.73	4.16	3.80	3.46	1.51	1.90	0.93
경력개발	5.78	5.83	4.93	4.14	3.73	3.71	1.64	2.10	1.22
책임감 / 자신감	5.93	5.20	5.08	3.76	3.93	3.48	2.17	1.27	1.60
평균	5.49	5.24	4.58	3.72	3.50	3.47	1.84	1.74	1.08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4.3 현장전문가 및 졸업생 응답 결과

직업소양능력 수준 규명을 위해 관련 분야 현장전문가 4명, D 전문대학 졸업생 3명 등 총 7명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였다. 현장전문가 및 졸업생들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업소양능력 기대수준을 4.70, 현재수준을 4.0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결과

산업체가 인식하는 현재수준(4.00), 교원이 인식하는 학생의 현재수준(3.65), 학생의 자기진단(4.07)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대학 학생들이 산업인력으로 산업체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경력개발능력과 국제문화이해능력(차이 1.0)의 현재와 기대수준간 차이가 크게 벌어졌으며, 리더십, 책임감 및 자신감(차이 0.9)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활용능력과 도구활용능력의 현재와 기대수준간 차이는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차이 0.3). 이는 전문대학 학생 혹은 졸업생의 정보수집 및 도구활용능력이 다른 영역에 비해 산업체의 기대수준에 근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9. 학생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현장전문가 인식 결과[13]

세부 영역	기대수준	현재수준	차 이
문제해결능력	4.20	3.70	0.5
의사소통능력	4.60	3.80	0.8
정보활용능력	4.30	4.00	0.3
도구활용능력	4.60	4.30	0.3
수리능력	4.00	3.50	0.5
국제문화이해능력	4.50	3.50	1.0
조직체계이해능력	4.60	3.90	0.7
리더십	5.20	4.30	0.9
팀워크능력	5.30	4.50	0.8
갈등관리능력	4.60	4.10	0.5
경력개발능력	5.40	4.40	1.0
책임감 및 자신감	5.00	4.10	0.9
평균	4.70	4.00	0.7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을 의미함)

4.4 교육 프로그램 지원 후 직업소양능력 수준 사후진단

본 연구에서는 직업소양능력 평가항목인 12개 항목 중에서 조직체계이해능력과 리더십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적용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7주 동안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 영역에 대한 사후 자기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체계이해능력의 경우, 사전 대비 사후 진단결과가 5.66로 5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과 GPA 평균 이하 학생의 향상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더십 영역에서도 사전 대비 사후 진단결과가 6.24로 30.8%의 향상율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리더십 향상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직체계이해능력과 동일하게 GPA 평균 이하 학생의 향상율은 35.4%로 GPA 평균 이상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조직체계이해능력 및 리더십 사전-사후 진단 결과 비교[12]

구분	조직체계이해능력			리더십			
	사전	사후	향상율	사전	사후	향상율	
응답자 전체	3.75	5.66	51.0	4.77	6.24	30.8	
성별	남자	3.56	5.53	55.0	4.68	6.26	33.9
	여자	3.85	5.75	49.4	4.83	6.23	29.1
GPA 평균	이하	3.45	5.37	55.4	4.61	6.24	35.4
	이상	3.94	5.84	48.3	4.88	6.25	15.1

(영역은 7단계행동척도로 구성되고 수치가 클수록 높은 수준 의미함. 참여 학생은 61명이었으나 사후진단에 응한 최종 39명 응답결과만 분석됨)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전문대학에서의 직업소양능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학생의 직업소양능력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D 전문대학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였으며, 직업소양능력 수준을 학생, 교원, 현장전문가 및 졸업생의 관점에서 진단하여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D 전문대학 학생의 직업소양능력의 현재 수준은 전반적으로 교원 및 산업체가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단 D 전문대학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행연구들 [1][5][10]에서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교원이나 산업체의 기대수준을 상대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특정 대학의 경우에만 한정되기 보다는 전문대학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고민과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전문대학의 교육채무성 차원에서 진단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처방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여러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 진단 및 지원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한시적으로 실시되어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전체(혹은, 졸업을 앞둔 2·3학년생)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일회성 특강이나 비정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나 대학 교과과정의 개선 혹은 재구조화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선행연구에서 제안하듯이[8], 교양교육과정에 직업소양능력 공통능력을 교육내용으로 반영하되, 학과별 특성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강화되어야 할 영역을 전공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부 혹은 학과에 따라 산업에 진출하는 분야가 다르고 필요한 직업소양능력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내용 구성은 학부 혹은 학과별로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셋째, 직업소양능력 배양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목표와 교수법 적용이다. 직업소양능력 습득은 관련 전공수업에서 이루어질 경우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전문대학 학생들이 미흡한 것으로 규명된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책임감과 자신감 등은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중심학습 등의 교육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활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양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공 교과목의 교육목표에 전공지식 및 스킬 배양 뿐 아니라 관련된 직업소양능력 습득을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과 교수-학습전략을 적용하여 수업을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소양능력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내부교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수업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교내 분위기 형성과 지원체제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도 대학 차원에서 직업소양능력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듯이[8], 직업소양능력 진단-피드백-처방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몇몇 전문대학에서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진단, 분석, 피드백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점이 도출된 영역에 대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많은 전문대학에 전파, 적용을 독려할만한 우수교육모델로, 직업소양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One-stop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은 영역별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기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규명된 직업소양능력 요구수준으로의 향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관리를 통해 전문대학 학생의 질관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D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사례연구하였으나 참여 학생 수가 제한적이고 대학의 특성화 분야와 독특한 학생성향을 고려해 볼 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분야가 사회과학분야, 홍보, 디자인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직업소양능력 수준이나 타 전문대학 학생의 현재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많은 대학과 다양한 분야의 학생, 교원, 산업체 인사와 현장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되었던 여러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문대학 학생들의 직업소양능력 수준을 규명하고자 시도한 또 다른 연구라는 점에서 전문대학의 직업소양능력 현황을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전문대학 학생 전체의 직업소양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전문대학 학생들의 산업 인력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고 문헌

- [1] 박동열, 최동선, 정윤경, 이광용, 수원여자대학

의 직업기초능력 진단도구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8.

- [2] G. Hayward and R. M. Fernandez, From core skills to key skills: Fast forward or back to the future? Oxford Review of Education, Vol.30, No.1, pp.117-145, 2004.
- [3] 이종범, *직업기초능력 수준별 성취기준 개발*, 제 66차 KRIVET 포럼 보고서, 2008.
- [4] 민선향, *전문대학생의 기초직업능력 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p.73-97, 2004.
- [5] 박성중, *주목식 교육혁신을 위한 전문대학 직업기초능력 평가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서, 2006.
- [6] 이정표, *대학생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주요국의 직업기초능력 지원 실태 비교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orking paper, 2005.
- [7] 정기섭, 장영수, "직업기초능력 제고를 통한 대학생 취업능력 향상 방안: 덕성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5권, 제1호, pp.109-139, 2008.
- [8]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송병국, 이종성, *직업기초능력에 관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8.
- [9] D. Curti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generic skills. In J. Gibb(Ed.), *Generic skill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 readings*, NCVER, Adelaide, pp.19-37, 2004.
- [10] 이종성, 정향진,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 [11] 박동열, 김은실, 황영아, *전문대학생 직업기초능력진단 결과보고서: CCQB(Core Competency Questionnaire using Bars)*,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2] 오만덕, 이승희, *직업소양능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보고서, 2011.
- [13] 오만덕, 이승희, *미디어 및 아트 분야 진출을 위*

한 직업소양능력 향상, 동아방송예술대학 연구보고서, 2011.

저 자 소 개

오 만 덕(Man-Deok Oh)

정희원



- 1979년 2월 :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
 - 1984년 2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석사(PR광고 전공)
 - 1997년 5월 : 미국 Sacred Heart University 대학원(MBA)
 - 2004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 1998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 광고홍보과 교수
- <관심분야> : 광고홍보, 브랜드마케팅, 교수학습

이 승 희(Seung-Hee Lee)

정희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구 성심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
 - 1999년 8월 :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교육공학전공)
 - 2003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 공통기초학부 교수
- <관심분야> :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학습, HRD